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 344-21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6년 4월 13일 수요일 (음 3월 7일) 제1538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믿습니다”

- 12일 새누리당 전북도 선거대책위원회는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20대 총선에서 꼭 새누리당 후보를 당선시켜달라”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전북도의회에서 회견을 열고 “김대중의 번호·노무현의 번호 기호2번을 다시 세워달라”고 호소했다.
- 국민의당 전북도당은 전북도의회에서 회견을 열고 “국민의당에 투표하는 것이 정권교체의 시작이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 정의당 전북도당은 전북도의회에서 회견을 열고 “이번 총선에서 정의당에 뜨거운 격려의 한표를 보내달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2면)

투표시 주의하세요 손가락기호 인증샷 선거법 위반행위

매번 선거 투표일이 되면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투표 인증샷이 SNS 등을 통해 공유하는 물결이 일고 있다. 그러나 이런 투표 인증샷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연상케 하는 손가락 기호 등을 나타낼 경우 선거법에 위반된다.

또한 순수한 투표참여 권유 및 홍보활동은 가능하지만 후보로 방목해 투표 참여를 권유하거나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으로 현수막 등 시설물·인쇄물·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를 사용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배된다.

도선관위, 선거일 투표참여 권유·금지사예 등 발표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장석조, 이하 전북선관위)는 12일 도민들이 쉽게 혼동할 수 있는 몇몇 투표참여 권유관련 선거법에 대한 안내문을 발표해 준법투표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먼저 현수막 등 시설물이나 확성기·녹음기와 같은 영상·음향 장치나 표시물을 이용하는 경우 투표소로부터 100m 밖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유추·지지·추천·반대 하는 내용의 나타남이 없어야 투표 참여 및 권유 활동을 할 수 있다.

또한 전화(문자메세지 혹은 SNS 등 각종 모바일 메신저 및 전자우편 포함)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입장이나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서는 안된다.

특히 유권자들은 인터넷·SNS·모바일메신저로 투표 참여를 권유하거나 투표 인증을 할 경우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투표한 사실을 밝히는 행위 ▲특정 정당·후보자의 기호를 손가락으로 표시하는 행위 ▲특정 정당·후보자의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벽보 등의 홍보물을 배경으로 하는 행위 등은 선거법에 위반되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별취재반

바로 오늘 당신의 한표 우리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오늘 총선 ‘반가운 봄비 속 반갑게 투표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도내 615개 투표소에서
익산시장·도의원·시의원 보궐 선거도 함께 실시
밤 10~11시쯤 당락 운곽... 경합지역은 2~3시간 늦게

“포기하지 말고 유권자 권리인 투표에 반드시 참여합시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도내 615개 투표소와 15곳의 개표소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이번 4·13 총선에서는 도내 10개 선거구에 총 47명이 출마해 평균 4.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또한 익산시장, 도의원(전주 제2선거구, 익산시 제4선거구), 시의원(전주 라 선거구) 보궐 선거 투표도 함께 실시된다.

도내 유권자는 151만 9,273명으로 남자가 74만 8,388명, 여자가 77만 885명이다. 개표는 전자개표기에 의해 진행되며 이날 오후 10시~11시쯤에는 후보별 당락의 운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경합 지역은 예상시간보다 2~3시간이 더 걸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총선은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의 독주에서 국민의당 출현이라는 변수가 등장, 전북 총선 결과가 주목된다. 특히 이번 총선은 선거 막판까지 도내 대부

분의 선거구에서 오차범위의 초박빙 관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부동층의 행배와 투표율이 승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꼽히고 있다. 도내 여야 각 당과 여론조사기관 관계자들은 도내 10개 선거구 중 절반이 넘는 선거구에서 오차범위내 초집전 양상이 펼쳐지고 있어 일부 선거구의 경우 1,000~2,000여표 내외에서 당락이 갈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투표율이 저조할수록 조직동원선거로 전략할 수 있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유권자들이 정치에 혐오를 갖고 투표를 포기할수록 정치권과 정치인이 벌이는 자정 노력보다 정치가 오히려 황폐화된다는 설명이다. 황계룡 전북행정개혁시민연합 집행위원은 “투표 포기행위는 최악의 선택일 수밖에 없다”면서 “정치의 변화는 정치인의 변화보다

유권자의 선택과 변화의지에서 출발한다. 투표 불참이 아니라 참여가 의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한편 이번 20대 총선에서는 비가 올 것으로 전망돼 투표를 저조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주기상청은 12일 오후부터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 영향을 받아 구름과 함께 비가 내리며 13일 오후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예보했다. 이에 후보들은 유권자들이 투표장을 찾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걱정이 태산같다. 전주권 한 후보는 “도민 한표 한표가 지역 삶과 장래를 결정하게 된다. 유권자의 희망을 선택하는 날인 만큼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투표부터 먼저 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특별취재반

고은 이동원(鼓隱 李東元)선생 추모 제4회 전국 농악경연대회

※주최·주관:부안농악보존회,전주매일신문 ※후원:농림축산식품부,전라북도,부안군,부안군의회



※일시:2016.5.8.(일) 09:00~15:00 ※장소:부안군청 광장
문의: 063)584-4182 / Fax 063)584-3250 / 010-2425-4182





제4회 부안 마실 축제
5월 6일(금) ~ 5월 8일(일)